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8월호
2011

Speech of Janice E. Arnold-Jones



It is an honor to stand before you to commemorate this day, June 25, the sixty-first anniversary of the Forgotten War. Today, we will take a moment to correct that error in the history books. (go to page 3)

Albuquerque in Korean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앨버커키>)



세계적인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알버커키 소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에 원고를 기고하시는 이경화 박사께서 만드셨기에 이번 호에 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합니다.(16페이지에서 계속)

뉴멕시코 한국학교 학생모집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Registration

■ 가을학기개강:

9월10일(토) Pre-K-12학년 9:15 am - 12:15 pm
9월14일(수) 성인반 6 pm - 8 pm

■ 과목:

한국어 (교재: E-높이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한국문화 무용 동요 미술)

■ 수업료: \$120 + 교재비\$30

■ 등록일:

2011년 8월 27일 (토) 10 am - 12 noon
(수업이 시작되는 9월0일 당일도 가능함)

■ 장소 및 연락처:

뉴멕시코한국학교(한인회관 www.kaanm.com)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505) 271-1777

교장 이선아

ninosophia@hotmail.com (505) 515-4211

■ Fall Semester:

Begins on Sat. 9/10/11 (Pre-K to 12th Grade)
9:15 am - 12:15 pm

Wed. Sep. 14th (Youth/Adults) 6 pm - 8 pm

■ Tuition: \$120 per semester + Text \$30

■ Fall registration:

8/27/11(Sat) 10 am-12 pm

@Korean Community Center

■ Location & POC:

NM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Community Center), 9607 Menaul Blvd. NE
(NW corner of Menaul & Eubank)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Principal: Sun Ah Lee, MFA,

ninosophia@hotmail.com cell (505) 515-4211

한국학교 교장 인사말

(Speech of Korean School Principal)

안녕하세요. 금번 새로 뉴멕시코 주 한국학교 교

장으로 임명된 이선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리틀엔젤스를 거쳐 김백봉 무용단, 서울 시립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짚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여름방학도 끝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을학기가 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하는 모국어입니다. 특히 한국어는 미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위해 꼭 배워야 한다고 정한 5개 언어 즉 러시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중 하나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타 언어를 능숙히 배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평균 600-800 시간인데 그 중 한국어는 특히 어려워 5,000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한국의 언어, 문화 등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시간만 투자한다면 미국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전략상 중요한 언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인 2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 못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면 동양인인 우리 아이들은 "What language do you speak?"이라는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어릴 때는 배우기를 게을리하다가도 철이 들어서는 왜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깊이 감지하시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할 이유를 찾게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감 있게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미의 기준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모습.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호감을 주곤 합니다. 비록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본인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은 연대성을 가질 수 있게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영어밖에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외국어를 하는 것은 뛰어난 재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동양인들은 모국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동양

인인 우리 자녀들이 학교 혹은 직장에서 영어 밖에 못한다는 것을 의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본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신문이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면 2개 국어를 하는 사람은 취업 면접 때 유리하고 고용때 우선권이 주어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같이 소수민족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펴는 곳에선 제일 불리한 취업 응모자가 영어 밖에 못하는 소수 민족이라고 합니다. (제일 유리한 이는 2개 국어를 하는 백인 남성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어를 얻는 것이지 영어 실력을 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멕시코는 한국어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배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려면 76번을 듣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학교는 자연스럽게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한글을 배울 수 있고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부족한 환경이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글 배우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또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배워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 주에 한국학교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이고 애써 세워진 이 한국학교가 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장학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어린이들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한인회 혹은 한인회 인터넷 사이트 www.kaanm.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Some Things are Worth Fighting For

Korean War Memorial

Albuquerque, New Mexico

June 25, 2011

by Janice E. Arnold-Jones

It is an honor to stand before you to commemorate this day, June 25, the sixty-first anniversary of the Forgotten War. Today, we will take a moment to correct that error in the history books.

Sixty-one years ago today, many of you were called to fight for the freedom of South Korea. My father, Capt. Robert F. Arnold, US Air Force was among you.

Every day we make choices. Maybe it's a small one like what we are going to have for lunch. Luckily most of our decisions are at this level. Sometimes though, we must decide something really important: a change of job or the choice of one's life partner. These mile stones are important past their immediate impact and change the course of lives.

Nations also make really important decisions that also change the course of their international lives. You and I do not get into physical confrontations on a daily basis. Experience tells us that we must use discretion before physical force.

The United States, since its inception, has also used restraint in using force. More often than not, our country has been drawn into wars that were the result of attacks on our citizens; no president makes this decision lightly. To be weak and do nothing can lead to a loss of stature and possibly lead to massive security consequences. A President can jump into a conflict for political gain. Either of these paths can lead to disaster for the nation.

Such was the case on June 25, 1950 when President Harry Truman was faced with a Communist backed North Korean invasion of its southern neighbor. The question before him: Was this worth fighting for? Was a far-away land, unknown to most Americans worth the lives of young men and the expenditure of millions of dollars? He knew that the country had defeated Germany and Japan at huge cost. The U.S. was yearning for peace, prosperity, and a world without

war.

There were countless other reasons not to go into war. President Truman faced opposition at every turn. With all the arguments and political opposition lined up against him, Truman took the principled decision to use the force and prestige of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a defenseless people against the threat of totalitarianism and destruction.

Some of the relatives of those threatened people are here with us today. We honor you.

Thousands of young men and women were sent to fight for their survival. Some of you are also here with us today. We honor you.

Working through the United Nations, President Truman sent a force that would insure that South Korea would remain free. He understood that freedom was worth fighting for.

We are here to honor the proud and resilient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brave Americans who fought and died to preserve their freedom. Words alone cannot give sufficient honor for their sacrifice. Nothing I can say can add to their courage and commitment.

Yummi House

雅敘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6.95

삼선짬뽕 \$6.95

해물탕면 \$6.95

다섯가지 냉채 \$29.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7.95

탕수우육 \$9.95

잡채 \$8.95

What does honor them is the nation that grew out of the destruction of war. South Korea today has used that legacy of sacrifice to build a nation that is truly a testament to so many sacrifices.

Now a country that reflects personal freedom and economic vitality, South Korea has become a model for Asia and beyond. It is truly a society and nation worth fighting for. South Korea's success speaks clearly about what is best with America and the Korean people.

Today in our country there are many challenges that cannot be solved by military force. No, we are not going to use force to solve the crucial problems we face. That's not the American way.

Our country, like Korea is worth fighting for and our fight will be in the halls of Congress and in the realm of public opinion.

Ladies and gentlemen: according to Tom Brokaw you are standing with The Greatest Generation, ". . . , the greatest generation any society has ever produced." These men and women fought not for fame and recognition, but because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When they came back they rebuilt America into a superpower.

Today, America stands on the brink of destruction. Our once robust economy is teetering on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a 14.5 trillion dollar debt, a debt that is over \$46,000 per person. That is 2 to 4 times more than most of you receive as an annual pension for your service in the military. If you look at the debt burden by counting only those who pay taxes, the current debt is \$130,000 per tax payer -- easily equal to a mid-sized home in Albuquerque.

Our tax code has been hijacked by politicians who chose to use their offices for personal and political gain rather than for the well-being and growth of our nation today and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system of using the tax code to pick winners and losers is so confusing, so onerous, so messed up that it is killing the very businesses needed to restore our economy.

And spending, I may be blond, but I know that if we take in only \$2.1 trillion dollars in taxes, but spend \$3.5 trillion

dollars, our Nation is going to be in the poor house. Worse, this uncontrolled spending is threatening the safety, security and sovereignty of the very nation that went to the aid of South Korea on June 25, 1950.

While we stand in the midst of the most perilous time for our nation, I draw comfort and pride from the example of the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who served in Korea - the all too often forgotten war.

Our friend and colleague, Admiral Jim Stavridis said it very well recently in recalling the service of World War II and Korean War Veterans:

Together, across the years of our nation's history,
They answered the call.
They stood the watch.
They looked neither left nor right.
They did not search for an exit.
They walked steadily and unafraid
Into mortal danger.
Knowing all the risks and all the costs.
On rolling ships at sea ...
On dusty streets under a burning sun ...
In the high mountain passes ...
And in the stormy skies ...
They said simply and bravely, "I will go."

The Greatest Generation did not sacrifice just to see our country destroyed from within. The Greatest Generation raised us to enjoy but also to preserve the bounty of this nation. It is time to honor that generation with our own sacrifice. This is our time to fight -- all of us, now, for some things are worth fighting for! It is our time to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America!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	--

Closed on Sundays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가을 순회 영사 업무

시간: 9.13(화), 9a.m. ~ 2p.m.

장소: 한인회관, 역전갱신, 비자, 재산포기 각서 기타

부고

본 한인회 이사님이시며 어버이회 회원이신 김길자님의 (Lisa Harlow) 부군되시는 Eugune Harlow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망: 8/4일(목)

한인회 임원회

한인회 임원회가 오는 8/14 (일) 5:00pm 한인회관에서 있겠습니다.

Agenda: 김치축제

어버이회 모임

7월 27일 어버이회 모임은 라스크르시스 조규자 부회장님의 후원으로 퍼시픽림에서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안내

복수국적 취득 관련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권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법무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당관 배상업 영사 (212-385-9300. 내선 26번)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nconsulatela.org)

복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시에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

- 시민권 중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후
-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고를 함께 접수하시고 거소증을 발급 받습니다.

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

-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 (약 3~4개월 소요)가 모두 종료되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국적회복 처리가 되면 한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가까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한국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한국내 법무부 02-500-9252)

일본지진 피해 기금 송금 그 이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저희 일본 선교를 위해 특별히 현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일본은 지난 쓰나미와 원전 누출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중순부터 이제까지 이와테현의 쓰나미로 훕쓸려간 마을의 복구 작업을 돋고 돌아 왔습니다. 뉴스에는 더 이상 방송되어지질 않고 있지만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난소 및 가설주택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돌아온 항구도시는 오쓰치초 (大槌町)였으며 인구 15,000명 가운데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이 1,500명이상이나 됩니다.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부서진 가옥과 건물들을 제거하고 있으며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보다도 YouTube에 이 지역 상황을 더 자세히 찍은 Video가 있어 웹주소를 보내니 옆의 주소를 눌러 보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ovGtbp9upz0> 반가운 것은 재해지역의 피해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이마나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지만 재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가 쉽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미야기현의 피해지역을 도우러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끝내고 일본에 돌아온 지가 이제 두 달이 됩니다. 그동안 재해지역을 돋기위해 보낸 두 주간을 뺀 나머지 한 달 반은 안식년 전에 했던 노숙자 사역을 돌아보고 재점검하며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으로는 동경과 카와사키 그리고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며 보내주신 선교현금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말씀 양육에 쓰이게 될 것이며 사용된 금액은 영수증으로 저희 선교부(IMB)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민분들께 안부를 부탁드립니다. 알바 커기에서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경에서, 박인배 부부드림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Mon~Sat 10:00~6:00

Sunday close

-메세이-

당신을 뉴멕시코 사람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얼마 전 벤드가 이메일 하나를 보내왔다. 노인복지관 탁구클럽의 총무를 맡은 친구로 블로그를 만들어두고 멤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 말고도 재미있는 얘기를 있는 대로 모아 보내주는 사람이다. 이흔케익이라는 이름의 희한한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산타클로스가 벽에다 ‘당신들 굴뚝청소 좀 잘해야겠어!’라고 쓰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어 웃게 만든다. 늘 밤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서 한 번은 우리나라의 해목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냈더니 다섯 가지의 색깔을 띤 나무가 아주 이채로웠다는 답장이 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껍질이 마치 거북이등 같은 휘어진 줄기의 노송이 가을볕을 흠텁 받아 있어 색깔의 질고 열음이 어지러운데다가 새빨갛게 물든 단풍나무 잎들이 반사하는 빛까지 줄기를 비추고 있는 우리소나무이었던 것이다.

유독 뉴멕시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서른다섯 가지의 사례를 재미있게 적시한 메일이었다. 항상 눈에 띄는 일들은 으레 그러려니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십상인데, 눈여겨보고 생각해보면 품격 있는 유머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다. 더 나아가 그런 재미를 찾아 살면 삶이 더 풍성해진다고 일깨워주는 내용이었다.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는 “참다운 탐험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눈이 겨우 5센티미터만 내려도 모든 학교가 쉰다는 걸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아로요가 뭔지를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고, 다리를 보고 물길이 아니라 진흙이나 아로요를 연상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당신이 다닌 고등학교의 이름이 Eldorado, Sandia, Monzano로 시작되거나, 자주 다니는 식당의 이름이 El, La, Los로 시작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방어용 무기를 갖추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나약함의 징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모래를 넣고 그 위에 양초를 꽂은 작은 종이초롱이면 완벽한 성탄절장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뉴멕시코가 가진 특수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고추가 유달리 많다는 사실을 들겠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만들어 파는 빨간 고추 묶음 ristra가 흔히 현관 기둥에 걸려 있어 집에 오는 손님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Las Cruces에 있는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는 바로 현금이 되는 농작물인 고추만

을 연구하는 고추연구소가 있는데, 지난 수년간 개발한 고추의 변종이 무려 43종이나 된다. 일반인들을 위하여 와인 만드는 포도처럼 변종에 상표를 붙이기 시작할 때라면서, 다른 고추에 비해 네 배가 넘는 풍미를 지닌 변종도 있다고 소장은 자랑한다. 뜨거운 날이 많고 알칼리성 토양에 약간 염기를 가진 물 때문에 뉴멕시코에서 고추가 잘 자라며 맛도 특이하다는 설명이다.

당연히 뉴멕시코가 독특하다는 서른다섯 가지의 사례 중에는 고추를 다른 예가 가장 많다. 고추만을 저장하기 위한 냉동고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식당에서 ‘빨간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란 걸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대답할 줄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파란색 고추를 넣은 빅백을 주문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크고 작은 파티에 파란색 고추스튜를 만들어 내놓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Hatch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피자집의 테이블 위에는 반드시 거칠게 뿐은 고춧가루 병이 놓여있다.

친구나 친척들이 당신을 10월에 방문하면, 주유소에 가면서 물병을 들고 햇빛을 차단하는 로션을 바르면, 다른 주에서 장사나 사업자가 당신에게 ‘국제우편요금’을 부과하려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정원에서 거미를, 현관에서 도마뱀을, 천정에서 지네를 보는 일이 흔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뒤틀 한구석에 독거미가 벌여놓은 좌판을 자주 볼 수 있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등산길에 가끔 독사를 만나는 위험을 겪지만 놀래지 않으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6톤 가량의 바위를 깨부수어 아름다운 잔디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주의 수도인 산타페의 한 중심에 있는 광장은 멕시코, 스페인, 미국원주민의 문화유산이 융합된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명소다. 번번이 거기서는 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상에도 스페인어가 공용화되어 책을 읽을 때나 뉴스를 들을 때 말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월마트, 샘스, 흠피포, 코스코 등에서 쇼핑할 때마다 아는 사람을 서넛 만나기 쉽상인데, 식품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며 주위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세 단어 중 한 단어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뒤바뀌고는 한다. Las Vegas가 동북부에 있는 뉴멕시코 주의 도시라는 걸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Albuquerque를 정확하게 쓸 줄 알면 당신은 뉴멕시코 사람이다. 참, 이 도시의 이름을 한국어로 쓸 때 사람에 따라 각각임을 흔히 보는데, 시사영어사의 영한대사전을 보면 앨버커키이다. 앞에 나온 단어 Hatch는 사전에도 없어 지도에서 확인해야 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의 와이오밍 가 한 켠에 HATCH라는 큰 간판 밑에는 ‘파란 고추도 있고 빨간 고추도 있소’라고 쓰여 있었다. 이메일은 나도 뉴멕시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었다.

NEW KOREA TRAVEL SERVICES

새한여행사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싼 비행기! 신속한 서비스!

항공권	호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 한국행 가정 번요금, 서울출발 미국행(방문·이민) 동경, 홍콩, 대만, 마닐라, 등이 가정 번요금 전유립 가정 전 유료 항상 보유·전유립 기차표 미국내선 가정 번요금 홍성기동 중미내선 가정 번 요금 단체 특별할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상 필요한 사건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롯데, 웨커힐, 리마다 브네상스 호텔리조트 및 전세계 호텔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관광·하와이관광·성지순례 신혼여행·그루즈 관광 미국내·동·중·서부 정기관광 남미관광·다양Tour Packages 중국·베트남·소련 비자대행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입니다

KOREAN AIR ASIAN AIRLINES SINGAPORE AIRLINES THAI AIRWAYS TATA CLIA AIR ASIA AIR FRANCE

타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17 W. OLYMPIC BLVD., #203, L.A., CA 90006 (홀링박·뉴햄프셔, 나리온행 전문점)

Website: www.newkoreatravel.com E-mail: newkoreatravel@yahoo.com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Part 2

김준호 장로

음악 감상이란 십중팔구는 아주 주관적인 개인 성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 하더라도 남이 듣기에는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기에 좀 객정스럽기도 하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장 구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다는 기대감도 있다. 음악 애호가들은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몸을 흔들며 좋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도취되어 눈을 감고 조용하게 듣기도 한다. 그만큼 음악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더라도 내가 소개 하는 음악을 호응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TV 방송을 시작할 때 들려주던 애국가 노래 소리가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렸었지만 40여년을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가사의 의미도 되새기게 되고 마음도 뭉클해진다. 말로 잘 표현 할 수 없지만 고국이 그리워져서인지 좀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주일마다 한국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성도의 교제도 하니까 크게 위로가 된다.

C. Romanticism 시대

2. Franz Schubert

Franz Schubert는 낭만주의 시대의 두 번째로 뽑는 음악가이다. 슈벨트하면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Ave Maria가 생각난다. 그 음악의 흐름은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그는 길고 긴 심포니보다는 짧은 가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무려 600여곡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보리수(the lindenbaum),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Die Schoen Mullerin), 겨울 나그네(Winterreise) 등이 포함된다. 그는 번개가 치듯 그의 머리를 스쳐가는 악상을 앓은 자리에서 끝내기가 일수였다. 그러므로 악상이 떠올랐을 때 우물쭈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다. 그래서 당시 무드 즉 감정에 따라 기쁘고 즐거운 노래, 슬프면서 애절한 노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흥분시켜 놓는 노래 등 다양한 것들이 작곡되었다. 그의 유명한 교향곡 8 번(unfinished)을 보아도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보통 교향곡은 모두 4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8번은 2악장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Unfinished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추측 하건데 그의 Impulsive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 하여간 많은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해서 28개의 recording이 시판 되고 있으니 유명한 음악임이 틀림없다. 이밖에도 Quintet in A(Trout), Quartet 14 번(Death and Maiden) 등도 유명한 작품이다.

3. Johannes Brahms

미국에서 옛날에 음악감상 시간에 Three B라고 해서 Bach, Beethoven 그리고 Brahms를 들었을 때 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독일 사람들인데 브람스의 음악적 위치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허나 모찰트를 빼 놓을 수 없다며 Three B를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나는 물론 후자 편이다. 브람스를 각아내리는 것은 아니나 브람스를 바하나 베토벤의 위치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우리 old generation은 브람스의 자장가(Lullaby)를 기억할 것이다. 화사하고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정말 감미로운 소품이다. 브람스가 존경했던 음악가는 베토벤이었다. 아마도 그를 닮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 같다. 음악을 작곡할 때 슈벨트처럼 즉흥적으로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여 발표했다고 한다. 그의 처음 심포니는 20년을 걸려서 완성했다니까 그 끈기와 투지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브람스는 1879년에 Breslau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작곡한 Academic Festival Overture는 독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우리 귀에 익은 것들 중에 Hungarian Dance 5번과 7번, Piano Concerto 2번, Violin Concerto in D, Variation on a theme by Hayden 그리고 심포니 1번, 2번 등이 있다.

불란서 영화중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독의 영화가 있는데 영어로는 “Good bye again”(VHS)이 있다. 이 영화는 Sagan의 소설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주역으로 Ingrid Bergman과 Anthony Perkins가 출연한다. Story는 젊은 남자가 연상의 여자를 연모하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사실인즉 Robert Schuman부부는 브람스를 후배 음악가로 키웠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들 간에는 남다른 우애가 깊어졌고 브람스는 자기도 모르게 슈만 부인에게 모성애적 사랑이 짹트게 되었다고 한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연상의 여자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영화에서도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주인공 남자가 연상의 여자를 초대한다. 그래서 이런 영화 제목이 붙었다고 한다. 브람스는 독신으로 생을 마쳤는데 64세까지 살았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4. Frederic Chopin

쇼팽하면 피아노, 피아노하면 쇼팽을 연상시킨다. 그는 일생동안 피아노와 결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피아노와 함께 살았던 작곡가며 피아니스트였다. 쇼팽은 베토벤처럼 심포니를 작곡하지 않았고 모차트처럼 오페라를 만들지도 않았고 헨델처럼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지도 않았다. 또한 슈벨트의 가곡과 같은 작품도 없다. 그렇지만 그의 천재적인 음악 재능으로 많은 소품들을 남겼다. Etudes 중에서 OP10, 3번(이별곡)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지 모른다. 또 지금처럼 가뭄이 몇 달 계속되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때에 그의 빗방울 전주곡(Prelude OP28, 15 번)을 들으면 빗방울 소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비 내리기를 더욱 바라게 된다. 하늘도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진다. Weather man들은 50%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50%는 커녕 전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다음 날 아무 미안한 마음 없이 천연덕스럽게 또 틀린 예보를 하는 것이다. 쇼팽의 Impromtus 중에서 OP66의 4번, Ballades 중 1,3,4번 Waltzes 중 OP 34의 1,2,3 번은 잘 알려진 곡들이다. 또 Piano Concerto 1, 2번도 사랑받는 곡들이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무척이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피난살이를 하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정에서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가끔 교회 학생회 모임이 있을 때면 가서 피아노 건반을 막 눌러 보기도 했었다. 동료 학생들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내가 입었던 옷은 딱 한 벌 언제나 똑같은 옷을 허구한 날 입고 다녀야 되니 좀 궁상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혹시 다른 학생들이 나를 보고 거지학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그후에 서울공대를 입학하고 공대 교복을 입고 교회에 나타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마치 나를 다른 교회에서 새로 온 학생처럼 아주 반갑게 대해 주었다. 내가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학생회 회장이면서 인기가 좋았던 아이가 그만 대학 입학을 못했다. 나는 좀 서운하였다. 함께 교회 봉사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 상심해서 모든 교회 활동은 접고 재수하며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그 당시 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유 선생님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으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셨다. 그렇게 시작된 성가대원 생활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서당 개 3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피아노를 못 배웠으니 좀 한스럽기도 하다. 아무튼 쇼팽의 피아노곡들은 내 마음을 가라 앗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는 귀한 음악들이다.

5. Felix Mendelssohn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셨고 이브를 배필로 주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 인해 우리들 스스로 배필을 택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동반자를 맞이하는 공식 절차가 결혼식이다. 이 뜻 깊고 귀한 잔치 날에 두 개의 행진곡이 사용된다.

처음에는 Richard Wagner의 오페라 Lohengrin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을 신부가 입장할 때 부르고 결혼식을 다 마치고 퇴장할 때는 멘델스존의 한 여름 밤의 꿈(Midsummer night's dream)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을 들려준다. 처음 곡은 신부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엄숙한 마음과 처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긴장되고 희망찬 마음을 나타내고 두 번째 곡은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는 깊은 의미를 표현하는 기쁘고 즐거운 음악이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결혼식은 가슴이 벅차고 긴장된 시간이다. 멘델스존은 이런 흥분된 마음을 음악으로 잘 표현하였고 행복함이 그 음악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는 셰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바탕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는데 기간이 6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나는 Violin Concerto 하면 의례히 베토벤을 생각한다. 그런데 멘델스존의 Violin Concerto in E minor는 베토벤의 것을 뺨칠 정도로 기가 막히다. 2악장 Andante의 melody는 아주 청순하고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을 꽁꽁 잡아 놓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그러다가 3악장으로 넘어가며 마치 기뻐서 깡충 깡충 뛰는 듯한 아주 경쾌한 악조로 흐름이 변한다. “야! 정말 대단한 음악을 만들었구나”하고 감탄케 한다. 현재 30개의 recording이 판매 중에 있다. 또한 그의 심포니 4번(Italian)은 혹 모찰트의 것이 아닌가하고 혼동될 만큼 경쾌한 음악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당시 음악 및 미술평론가로 Bernard Shaw(BS)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멘델스존을 헐뜯으며 심한 말을 퍼부었다. “그는 슈벨트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으나 바하나 헨델이나 하이든이나 모찰트나 베토벤이나 와그너와 같은 분들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베나드 쇼는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를 잘한다고 이름난 사람이었다. 한번은 좀 반반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BS에게 청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우리 자

식은 나처럼 예쁘고 머리는 당신처럼 영리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쇼는 익살 맞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애들은 나처럼 박색이고 머리는 당신처럼 텅 빈 아이가 생길 테니 아예 생각도 말자구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 래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joke이기를 바라지만 멘델스존을 악평한 것을 보면 사실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멘델스존은 죽은 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음악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는 젊은 나이 38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참으로 아깝게 생각 된다. 줄지의 많은 음악가들 중에 단명한 자들을 보면 슈벨트는 31세, 모찰트는 35세, 비제이는 37세 멘델스존은 38세, 쇼팽은 39세, 슈만은 46세, 말러는 51세에 세상을 떠났다. 장수한 음악가로는 얀 시벨리우스가 92세, 스트라빈스키가 89세, 베르디가 88세까지 살았다. 단명한 음악가들은 거의 전부 일상생활이 평탄치 않았다. 만약 슈벨트, 모찰트, 멘델스존, 쇼팽, 슈만 같은 분들이 60세까지 사셨다면 더 풍성한 음악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

6. Guseppe Verdi

베르디는 1813년에 이태리에서 탄생했는데 어려서 부터 음악 재능이 보여서 그 당시 이름 난 음악 학교인 Milan Conservatory에 입학 신청을 했지만 학교당국은 자격미달이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개인 교사를 두고 음악 공부를 계속했다. 처음 오페라 Oberto를 발표하여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두 번 째 것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세 번 째 발표한 오페라가 Nabucco인데 이것이 선풍적인 대성공을 거두어서 일약 대가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Rigoletto, La Traviata, Il Travatore 등을 작곡하여 이탈리아가 낳은 최상의 작곡가가 된다. 그 후에도 Aida, Otello, Falstaff 등을 발표해서 모두 30여개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Milan 음악 학교의 판단을 뒤엎고 모찰트나 와그너 대열에 선 것이다. 정말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했던 것이다.

Nabucco 란 바벨론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이태리 말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유대 왕국을 제폐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다. 유대인들의 가슴 아팠던 일들을 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편 137 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베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자 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

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찐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 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찐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불을찌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들이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것들을 반석에 떼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얼마나 눈물 나게 하는 서글픈 시편인가! 그들의 고통을 절규하며 호소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에 사무친다. 그런데 베르디는 이 극한적인 상황을 오페라 나부코 3막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합창은 다음처럼 애절한 노래를 부른다.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 바람 불어 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벽에 입마추게,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 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신의 하프소리, 그리운 가락을 들려 다오, 마음속에 불타 오는 추억, 정답게 나에게 말해주오, 구슬픈 운명에 소리 맞춰, 비탄에 젖은 소리를 지를 때 그대 위해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베풀어 주시리.”

이 오페라는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의 처지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크게 자극하여 전무후무한 열광을 받았다고 한다. 이외의 오페라들도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을, 슬픔을, 또는 사랑을 노래하는 많은 애창곡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 하는 음악들을 간단하게 추린다면

Symphony 는

1. Beethoven 의 5 번
2. Mozart 의 40 번
3. Brahms 의 1 번

Piano Concerto 는

1. Beethoven 의 5 번
2. Mozart 의 23 번
3. Brahms 의 2번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폴리오준비반, 냇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딜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걸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 contact@parkfineart.com

Violin Concerto 는

1. Beethoven 것
2. Mendelssohn 의 E minor
3. Tchaikovsky 의 D major 등이다.

광야의 소리 6,7 월호에 낸 나의 articles 들을 읽고 독후감을 멀리 한국에서 보내온 분이 있다.

“----- 어찌면 여기선 ‘장로님’이라 부르는 것이 격에 맞을 것도 같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사모님께서는 지난 겨울에 뜻하지 않게 넘어지는 사고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 한켠으로 빨리 쾌차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립니다.

이전 연세가 연세인 만큼 매사 불여 튼튼이라고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점심식사를 막 끝내고 커피 한잔하는데 박사님이 보내 주신 ‘광야의 소리’ 6,7월호 두 권 바로 읽어 나갔습니다.

특히 ‘꽃 사랑’은 대물림된 취미인 듯 보입니다. 거기에 음악을 것들이게 되니 이는 환상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다지고 다짐된 심성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빼닮아서 그랬고 아름다운 꽃에서 마음의 부드러움이 전이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아름다운 음률이 자리하고 꿈고 예쁜 꽃처럼 아름다운 생각들이 중심이 돼 도도하게 강물처럼 흘러 갈 때 모든 잡스러움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놀랍니다. 박사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합니다. 박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밥 먹듯 일상화하시는 그 모습에서 친 사랑을 봅니다.

접입가경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후속편도 그리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보내 주시면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사랑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 감당하다가 언젠가는 가야할 곳으로 기꺼이 가야 하지요.

끝으로 나의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믿음이 깊은 곳으로(3) - 사랑

조영진 감리사

(이소영 자매 정리)

아름다운 사랑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고린도 교회는 '불은 붙었는데 연기가 많이 나는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열심도 있었으나 반면 그 만큼 문제도 많았다. 먼저 교회 안에 여러 파로 나뉘어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러한 내부 분쟁으로 인해 법정에 교인들간 서로를 고소하는 상태였다. 고린도는 동서남북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향락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으므로, 교회 내에서 조차도 부도덕 음욕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또 다른 문제로 새로 세워진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회였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더스럽게 쓰여지는지 성찬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부활이 무엇인지 몰라 질문이 많았다. 똑똑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는 이민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민 교회 내에도 분열의 아픔이 심각하며 컴퓨터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음란 문화의 유혹에 교회도 노출되어 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더 낮아지고 섭겨야 하는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교회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모두가 신앙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다.

바울은 성숙되지 못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사랑'의 귀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구제와 회생이 넘쳐나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며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몸이란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교회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인 것이다. 교회 문을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질서인 가정도 마찬가지며 교회 내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목회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목사가 아무리 교회 조직 운영의 귀재라도 천사의 예언을 전한다 하더라도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한 대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분의 강점을 존중해주고 약점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며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 조직 내에서 직분을 맡고 책임을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현 회장(505-271-8031)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뉴멕시코 성경교회

박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도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기기진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1:00 am (Sun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파밍턴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인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잘 감당하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며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거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서 출발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 사랑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성도들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다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면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나와 다른 것일 뿐일 때가 많다. 다르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들이 회의 하다가 서로 싸우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폭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출발점이 된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부부사이에서도 사랑의 첫걸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다. 하물며 운전면허도 준비가 필요한데 결혼을 하는데 아무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랑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려는 커플들에게 ‘금성에서 온 여자화성에서 온 남자’는 꼭 읽기를 권하는 책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많다. 성장 과정에서 바라 본 부모님의 모습에서 무의식중에 형성되는 배우자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집착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늘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격차이이다.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한다. 반면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과연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맞춰가며 사는가하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 함께 풀어가는 숙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은 격려이다. 칭찬은 상대방이 잘했을 때 해주는 것이고 격려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해주는 것이다. 칭찬은 그 사람의 잘한 행동이 대상이 되는 반면 격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대상이 된다. 격려는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 교회 가정 부부 사이에서 격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단치고 비판한다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격려를 통해 온다. 오합지졸 같은 열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이 다음에 빛이 될 것이며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이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격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친교실에서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십을 할 때 세 사람이 죽는다. 첫째로 도마에 오른 대상이 죽고, 두 번째로 말하는 당사자가 죽고, 세 번째로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죽는다. 그중 가장 나쁜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왜냐 듣고 앉아있는 그 사람만이 가십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격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자.

세 번째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치고 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를 뜻한다. 예수를 믿고 급격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인간이 변하기란 쉽지 않다. 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 여러 해를 거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그러기에 그 변화의 과정을 참고 기다리며 지켜봐주면서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용서를 되풀이 하며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목회자로서 좌절을 느끼는 경우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이다. 문명과학이 인간에게 엄청난 편리를 가져다 준 반면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인내의德을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불편하거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부부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들로도 깨어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고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며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사랑은 기도이다. 진정한 사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 중에는 사랑을 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할 수도 표현할 줄도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사랑이 기도인 첫

번 째 이유는 비록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라는 인생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깊이 있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무언지 모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사랑받는 인생이 시작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기에 사랑은 기도이다. 사랑이 기도인 두 번 째 이유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내게 아픔과 가시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도 어루만지시면 그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무릎을 끓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실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다. 그리기에 진정한 사랑은 기도이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팽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교회의 직분도 오랜 교회 출석도 사랑이 없이는 무익하다고 했다. 과거에 잘했던 신앙생활도 지금 현재 사랑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사랑이 없다면 좋은 집과 좋은 차도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이 되겠는가.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좋은 인생인데 미움과 아픔으로 채워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가슴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인간 관계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사랑의 회복 사랑의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은 곳으로 혼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가정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바호에서 온 편지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 합니다.

2010년 부활주일, 주님께서 새롭게 나바호 인디언 선교 목회를 위해 교회를 허락 하셨고, 목회를 하는 동안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매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2011년 6월 7일 10주간의 Grace Alpha코스를 13명의 성도님들이 수료하였습니다.

남자 4명 여자 9명이 수료한 이날 먼저 출업 축하연을 조촐하게 하였고 그리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4명의 성도님들이 10주 개근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Alpha를 이수한 분에 한하여 Tres Dias 훈련에 참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 6월 25일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한 쌍이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이지만 결혼식 없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며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에 부부가 결혼식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올리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로 많은 쌍들이 혼인 예식 없이 그냥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살다 싫증나면 쉽게 헤어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7월 23일에 좀 더 나이가 많은 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바호의 젊은이들이 혼인 예식을 중요성을 깨닫고 결혼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6월 둘째 주간부터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인디언 교회이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금년 여름에 7개 교회가 다녀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미 6월 중에 4개 교회가 단기선교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VBS만 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는 VBS를 다른 교회는 Youth들과 스포츠 캠프를, 다른 교회는 VBS 와 Youth 수련회 및 저녁 시간대에 성인 성경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저희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끌어 올리고 성숙시키기 위해 최대한 단기선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저희 집을 여러모로 수리해 주고 외벽에 새롭게 페인트칠을 해 주었습니다.



4. 드디어 주님께서 이곳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띠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 이제 그 것을 이루기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University Baptist Church에서 후원하는 다목적용 건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분의 뜻과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 제 머릿속에는 숙소용 건물을 먼저 건축하고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강의실과 숙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건축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하는 건물은 4개의 소그룹 강의실과 1개의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과 샤워실과 부엌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아마도 50명이상은 충분히 숙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은 교회입니다. 450석이상의 교회 건물, 모든 공 예배와 컨퍼런스, 캠프, 음악회 등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교회 건물.



앞으로 있을 사역과 관련된 기도 제목

1.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물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 되도록
2. 남은 여름행사 중 어린이와 청소년 많은 성인들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3.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Youth Church 예배를 통해 많은 어린 학생들이 변화 되도록
4. 교회에서 사용할 15인승 Passenger Van 구입비용을 위해.

교회 및 선교사역의 중장기 기도 제목

1. 교회 재건축 : 예배실의 기능뿐만 아니라 Concert Hall, Conference Hall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교회 건물로서 450석 이상의 교회 재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선교 훈련생 및 단기 선교 팀을 위한 Dormitory 2개동의 건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Dormitory가 먼저 건설되어짐으로 교회 재건축을 위한 자원 봉사자들의 숙소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선교 훈련 및 나바호 및 Native American 교회의 동시적 부흥운동으로서의 교육 선교를 위해 강의실 용 건물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4. 교육 선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 나바호 및 Native American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를 위한 재교육

- 주일학교 선생님 양성교육, 평신도 지도자 양성교육

- 청양사역자 Conference, Youth 사역자 Conference, Children & Youth Conference

- 평신도를 위한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 제공 : Tres Dias, 내적 치유 세미나, 부부의 삶 세미나, 아버지 학교 등

- 선교 훈련원, 신학교 분교 설립 등

 Grace Community Church
Native American Prayer Center

Missionary Pastor : Peter(성현) & Joy(정이) Cho

P.O. Box 6052 Gallup NM 87305 / Tel
505-870-9838,

E-mail navajo9won@yahoo.com /
www.navajolove.com



ICHIBAN
Japanese Restaurant

—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위키백과에 소개된

알버커키 를 아십니까?

(<http://ko.wikipedia.org/wiki/앨버커키>)

작성자: 이경화 장로

앨버커키(Albuquerque)는 미국 뉴멕시코 주에 있는 도시이다.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한글 표기를 '알버커키'로 쓰고 있다. 인구는 545,852명(2010년)이며 해발 1,619m의 고지대에 있는 도시이다. 동쪽에는 3,255m 높이의 샌디아산이 있고 서쪽에는 작은 분화구들이 있는 메사(Mesa)언덕이 있다. 그사이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리오그란데 강(Rio Grande)은 도시의 북에서 남으로 질러 흐르고 있다. 도시의 시작은 1706년 스페인의 영토일 때 작은 마을로 시작되었으며, 마을 이름은 17세기의 스페인 총독의 출신 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뉴멕시코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주변 위성도시 인구를 합친 인구는 907,775(2011년)이 되어 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된다. 2007년 통계에서는 앨버커키가 미국에서 6번째로 급 성장하는 도시로 뽑힌 바도 있다. 뉴멕시코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UNM), 샌디아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가 있고 주변 위성도시인 리오 란초(Rio Rancho)에는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인텔이 있다.

역사

1706년 리오그란데 강가 지금의 올드타운에 스페인인의 아주 가족들이 모여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이름을 알부케르케(스페인어: Alburquerque)라고 지었는데 그 당시 뉴스페인을 다스리던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즈 데 라 쿠에바(Francisco Fernandez de la Cueva) 총독은 스페인에 있는 알부케르케 마을 출신 공작(公爵, Duke)으로 스페인 왕의 총애를 받고 지금의 멕시코에 뉴스페인 총독으로 나와 있던 사람이었다. 마을 이름을 총독의 출신 마을 이름과 같이 지은 것이다. 앨버커키 도시의 별명이 듀크 시티(Duke City)로 불리는 이유가 곧 총독이 공작, 듀크였던 데에서 기인한다. 뒤에 시의 서류관리하던 직원이 'Albu' 다음에 오는 'r' 자를 실수로 빼버리고 도시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앨버커키

(Albuquerque) 공식 이름으로 되었고 발음 역시 스페인어 발음 아닌 지금의 영어 발음으로 변화되었다.

1880년 철도가 들어오고 1920년대 시카고와 로스 앤젤레스를 잇는 66번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도시의 발전은 가속되었다. 1900년 초에 이곳의 맑은 날씨가 폐결핵 치료에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요양원이 많이 생겨서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1930년에 한국인으로 한경직목사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 폐결핵 환자로 이곳에 와서 2년간 요양하고 완쾌되어 귀국했던 일도 있다. 한 목사가 있던 요양원은 크게 성장하여 이곳 40만명의 건강보험가입자를 돌보는 지금의 프레스비태리언병원(Presbyterian Hospital)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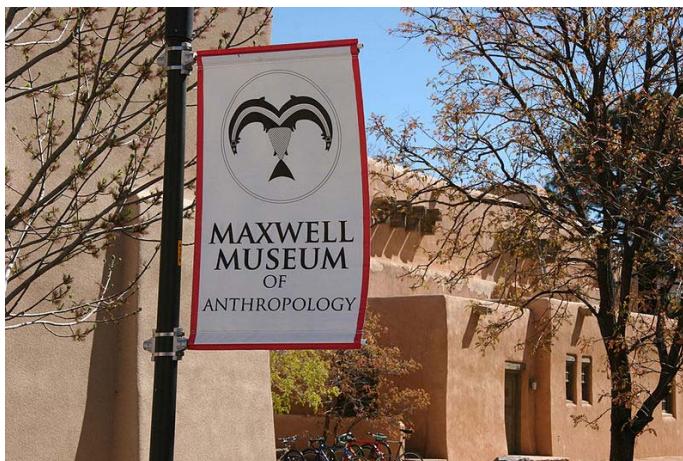
1930년 커트랜드공군기지(Kirtland Air Force Base)가 들어서고 1949년 샌디아국립연구소가 세워져서 2차 세계 대전 후 냉전시기에 국방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센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도시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1981년 반도체 회사 인텔이 위성도시인 리오 란초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더 도시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앨버커키 인구는 54만5천852명으로 나왔다. 가구 수로는 239,166명이 된다. 인종별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백인이 전체의 70%, 흑인이 3.2%, 미국원주민 인디언이 4.5%, 아시안이 2.6%이며 기타가 15%가 된다. 전체 인구의 46.7%가 히스패닉(라틴계 포함)이 된다.

교육

앨버커키에는 1889년에 설립된 주립대학인 뉴멕시코 대학교가 이 지역의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학생 수는 3만 4천명선이다(2009-2010년). 600 에이커 면적에 자리잡은 캠퍼스의 건물이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푸에블로 건축 스타일로 지어서 뉴멕시코의 고유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12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에 있는 맥스웰 인류학 박물관(Maxwell Museum of Anthropology)은 1932년에 세워졌으며, 이는 앨버커키에서 가장 먼저 생긴 박물관이다. 뉴멕시코 대학원의 프로그램중에서 미술대학의 사진학과 (5위), 의과대학의 가정의학(8위)을 포함해서 다섯 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랭킹 톱(Top) 10 안에 들어갔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초급대학으로 센트럴 뉴멕시코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다. 2008년도 등록 학생 수는 2만4천870명이었다. 여기서 공부한 성적을 가지고 4년제 뉴멕시코 대학으로 전학하는 학생도 많다.

앨버커키의 초중고 학생은 모두 8만9천5백명선(2010년)이 되는데 13개의 고등학교, 27개의 중학교와 89개의 초등학교로 나누어 진다. 이들의 교육은 APS(Albuquerque Public Schools)가 담당한다.

APS에 속하는 교사의 수는 6천 5백명이 된다. 텔레비전 교육방송 KNME-TV는 APS와 뉴멕시코 대학의 공동 운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도서관은 17개의 지역에 지역 도서관을 두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e-Book)의 대여 서비스도 한다.

경제

포브스(Forbes)잡지에서 2006년도 기업이나 직장의 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앨버커키를 1위로 선정했고 2008년에는 13위의 도시로 선정했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커트랜드 공군기지와 뉴멕시코대학 그리고 위성도시 리오 란초에 있는 인텔사가 있고 그와 관련되는 많은 하이테크 회사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와 같은 랭킹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앨버커키 거주하는 시민의 평균 수입은 가구당 \$38,272, 가정(Family)당 \$46,979로 보고되었다.

교통

포브스(Forbes)잡지에서 2006년도 기업이나 직장의 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앨버커키를 1위로 선정했고 2008년에는 13위의 도시로 선정했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커트랜드 공군기지와 뉴멕시코대학 그리고 위성도시 리오 란초에 있는 인텔사가 있고 그와 관련되는 많은 하이테크 회사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와 같은 랭킹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앨버커키 거주하는 시민의 평균 수입은 가구당 \$38,272, 가정(Family)당 \$46,979로 보고되었다.



관광

2006년도 USA Today 잡지에서는 그 해에 관광 할만한 곳 6개를 추천했는데 앨버커키가 그중에 하나로 뽑혔다. 앨버커키가 추천된 이유는 10월 첫 주에 열리는 열기구 축제(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때문이었다.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오는 때가 바로 이 때가 된다. 해마다 10만명의 여행객이 모이는 이 축제 때에는 600여개의 열기구가 참여하고 한주일 동안 앨버커키의 하늘을 수백개의 열기구로 장식한다. 앨버커키 방문객에게 인기있는 곳으로 아래의 명소를 들 수 있다.



샌디아 피크 트램웨이(Sandia Peak Tramway)- 1966년에 완공된 이곳의 케이블카는 앤버커키에 살고 있던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중 한 사람이 1978년 가스 기구(氣球)를 타고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던 벤 아브루조(Ben Abruzzo)란 사람이다. 샌디아피크 트램웨이(케이블 카)를 타려 오는 관광객 수는 매년 27만5천명 정도로 이곳은 앤버커키의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되고 있다. 해발 1999m에 있는 베이스 터미널에서 산 위의 해발 3163m에 있는 터미널까지 15분만에 올라간다. 케이블의 길이가 6km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을 사용한 케이블카로 알려져 있다.



올드타운플라자(Old Town Plaza)- 이곳은 앤버

커키가 300년전에 탄생된 자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플라자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100년전의 스페인식으로 지은 것이다. 플라자에는 1793년에 지었다는 산페리페데네리(San Felipe de Neri) 성당이 있다. 앤버커키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이다. 플라자를 둘러가면서 인디언의 수공예품과 여행 기념품 등을 파는 150여개의 의상점이 모여 있고 많은 갤러리도 주변에 있다. 근처에는 앤버커키 미술 역사 박물관이 있다. 이 지역의 미술가들의 작품과 이 지역의 스페인 문화와 인디언 문화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전시들이 많이 있다.



국립 핵 과학 역사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Nuclear Science and History)- 원자탄의 개발 역사가 상세히 전시되어 있고 2차대전때 일본에 투하했던 두 개의 원자탄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핵물리 과학에 관련된 전시물이 많이 있다.



페트로글리프 국립 모뉴먼트(Petroglyph National Monument)- 앤버커키의 서쪽에 있는 언덕위의 지평선을 보면 다섯개의 화산 분화구 흔적이 보인다. 화산 밑에는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메사(Mesa) 언덕이 넓게 자리잡고 있다. 17마일에 이르는 메사 언덕에 약 2만개의 그림이 돌

에 새겨져 있는데 이 지역을 보호하기위해서 천연 기념물로 정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푸에블로 인디언 원주민들이 종교적으로 신성하게 여기는곳이다.

인디언 푸에블로 문화센터(Indian Pueblo Cultural Center)- 뉴멕시코에는 19개의 인디언 푸에블로가 있다. 이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인디언춤의 공연도 볼 수 있다.

한인교포사회

1987년 4월 4일 뉴멕시코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가 설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해오고 있다. 2003년에는 한인회관 건물을 세입했고 2006년에는 건물을 매입했으며 2세 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와 노인을 위한 어버이회도 운영하고 있다. 한인회는 지역의 한인교회와 공동으로 뉴멕시코 교포를 위한 광야의 소리 월간지를 발행해서 뉴멕시코주 전역에 있는 교포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알버커키에 있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이 16곳이 되며 한국식품점이 4곳, 개신교 한인교회가 5교회가 되며 한인카톨릭 공동체도 있다. 뉴멕시코주의 한인교포수는 2천4백 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11년).



알버커키 자매도시

스페인 알부르크르케(Albuquerque)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멕시코 치와와

스페인 헤론

멕시코 파달라하라

독일 헬름슈테트

중화민국 화롄 현

중국 란저우 시

이스라엘 레호보트

일본 사세보 시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1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을
check로 payable to "KUMC"로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12년간 축적된 Hair Stylist
Haircut, Color, Other Chemical Service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Women(from\$40), Men(from\$20),
Children 10&under(from\$20),
Teen Girl(11-15)(from\$35), Bang Trim(from\$7)

Shampoo & Style

Blowdry(from\$25), Curling Iron(from\$35),
Flat Iron(from\$35), Updo(from\$60)

Conditioning Treatment

Steam Treatment(from\$25), Deep Conditioning
Treatment(from\$25), Shot(from\$15)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교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룬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BQ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8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사고/팔고

정보마당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접어서 발송

To: